

종합

호텔업체 베이커리사업 본격 확대한다

조선히텔 제빵사업부 신설, 신라호텔도 개편 예정

호텔업계의 베이커리 사업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데이앤데이', '달로와요'를 운영하고 있는 웨스턴조선히텔(이하 조선히텔)은 2월 1일 제빵사업부를 신설하고 운영사무실을 99년 8월 준공한 경기도 용인공장으로 이전해 이곳에서 베이커리 사업을 총괄할 예정이다. 조선히텔은 이를 위해 제빵사업부 내에 지원팀, 생산팀, 연구개발팀, 영업팀 등 4개 팀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처럼 조선히텔이 제빵사업부를 신설할 것은 현재 운영중인 베이커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향후 이 사업을 본격 확대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96년 11월 분당 E마트에 1호점을 개점하면서 베이커리 사업에 뛰어든 조선히텔은 이후 꾸준히 분점을 개설해 현재 분당점, 안양점, 인천점, 일산점, 청주점, 서부산점, 김천점, 부천점, 창동점, 원주점, 신월점, 구로점, 부평점, 대구 성서점, 산본점, 천호점 등 17개 E마트 매장

에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조선히텔은 올해 개설될 예정인 14개 E마트 매장에 추가로 점포를 오픈할 계획이어서 점포 개설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또한 달로와요 매장을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영등포점, 본점 등 3곳에 추가로 개설할 예정이다. 이로써 달로와요는 지난해 8월 광주 신세계백화점에 입점한 1호점을 포함, 모두 4개로 늘어나게 된다.

99년 9월 현대백화점 압구정점에 '신라호텔베이커리'를 오픈해 베이커리 사업에 뛰어든 신라호텔은 지난해 12월 종로빌딩(구 화신백화점 자리) 지하에 2호점을 개설했다. 현재 신규사업팀에서 이를 관리하고 있는데 조만간 전담 조직을 신설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업체 한 관계자는 "향후 분점 개설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제과사업부 신설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손인수>

라리는 지난 99년 11월 17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100평 규모의 생산공장을 설립했고, 오는 3월경에는 동부이촌동에 직영점을 오픈할 계획이다. 이로써 라리 직영점은 압구정점, 신세계점, 신촌점을 포함, 4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93년 3월 9일 압구정점을 시작으로 사업을 시작한 라리는 가맹점을 포함, 신세계점, 롯데잠실점, 신촌점, 신사점, 홍대점, 서초점, 예술의전당점, 분당점 등 9개의 점포를 운영중이다. <손인수>

“제과제빵전공 석사 과정 없다”

경희대학교 조리과학과 신민자 교수

당초 경희대학교에서 조리과학대학원을 개설하고 여기에 제과제빵 석사과정을 신설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확인 결과, 사실 무근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학교 호텔관광대학 조리과학과 신민자 교수는 “어떤 경로로 조리과학대학원 및 제과제빵 석사 전공 신설 내용이 알려진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같은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신 교수에 따르면 조리과학과 내에 석사과정이 올해 신설돼 조리과정과 외식과정에 걸쳐 대학원생을 모집했으나 제과제빵 전공만을 위한 과정은 개설되지 않았다. 단지 조리과정에서 이수할 과목 중에 제과제빵 분야가 일부 포함됐을 뿐이고 학위도 제과제빵이 아닌 조리 전공으로 수여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2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제과제빵과가 활발하게 운영중이고 일반 대학에서도 교과과정에 포함시키는 사례가 많아 제과제빵이 4년제 정식 학과 및 대학원 과정으로 신설되는 일이 요원한 것만은 아니라는 게 업계 및 학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손인수>

제과점 과세특례자 대폭 준다 간이과세자 기준 4,800만원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연매출 4,800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미만인 제과점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또 2,400만원 이상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과세특례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자는 그만큼 세금 부담이 높아지게 됐고, 일반과세제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앞으로 세금계산서 매출 및 발행이 의무화된다. <손인수>

베이커리 라리 직영점만 개설 신공장 설립...3월 이촌점 오픈 예정

케이크 복합 커피전문점으로 잘 알려진 (주)베이커리 라리(대표 김정순)가 향후 점포 개설 방향을 직영점 위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업체

발렌타인데이, 팬시점과 차별화가 관건 고객 이탈 방지 위해 고급 초콜릿·미니케이크 강화

발렌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시장 공략을 위한 각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이들 업체는 올해 발렌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가 설 연휴와 겹친 지난해와 달리 평일인 데다 전반적인 경기 활성화에 힘입어 전체 시장 규모는 신장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팬시점과 백화점으로서의 고객 이탈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업체들은 고급 초콜릿 제품과 미니케이크 제품을 강화하는 등 팬시점과 차별화할 수 있는 전략에 부심하고 있다.

파리크라상(대표 김영덕)의 경우 팬시점과의 차별화를 위해 품질이 우수한 수입 초콜릿 세트를 강화하는 한편 조각케이크나 미니케이크를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팬시점으로서의 고객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해 벌크 제품을 강화하고 가맹점에 포장재료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라명과(대표 홍평우)도 '새천년의 첫사랑'이라는 의미를 부각시킬 수 있는 행사와 상품을 기획하고 있다. 특히 이 업체는 고급 제품을 보강하기 위해 자사 고급 브랜드인 분당 '브씨엘'에서 벨기에

산 레오니다스 초콜릿을 판매하는 한편 '2000 @ love 페스티벌' 이벤트를 통해 N세대를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

고려당(대표 김지정)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객단가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고가 제품 위주로 상품을 구성하고 있다. 또한 팬시점과의 차별화를 위해 1만원대 천사케이크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 제일제당(대표 손경식)의 뚜레쥬르도 팬시점이나 백화점과의 경쟁에 대비해 제과점의 강점인 케이크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이처럼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품질이 우수한 고급 초콜릿을 위주로 객단가를 높이는 한편 미니케이크와 조각케이크를 강화하는 등 차별화 전략으로 20대 후반에서 30대까지의 소비자들을 적극 공략해 나갈 방침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팬시점이나 백화점의 경우 포장이나 상품 구색에서 유리한 점이 있긴 하지만 제품 자체의 질은 낮은 편"이라며 "이러한 틈새를 이용해 품질이 우수한 고가의 초콜릿 제품이나 미니케이크를 활용한다면 실속있는 제품을 선호하는 20대 후반에서 30대까지의 고객들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옥>

램을 전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기존 고객 우대프로그램이란 011 가입자라면 누구나 '자유세상', '성공세상', '행복세상', '여유세상' 중 하나를 선택해 할인혜택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파리크라상은 행복세상 제휴업체로 011 가입자 중 행복세상 서비스를 선택한 고객이 파리바게트나 파리크라상을 이용할 경우 연간 20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 금액의 2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파리크라상 이정기 부장은 "이번 제휴를 통해 신규 고객을 흡수, 연간 300억원의 신규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경옥>

고려당, 조직 개편 단행 기획부 독립, 목적지향적 운영

고려당(대표 김지정)이 지난 1월에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이 업체는 그 동안 대표 이사 산하에 영업본부와 생산본부, 관리부, CI팀을 편제하고 기획부는 영업본부내에서 영업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돼 왔으나 영업 기틀이 어느 정도 확립됐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기획부를 독립, 위상을 한층 강화시켰다. 이에 따라 기획부를 중심으로 영업본부와 생산본부 등 각 부서의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목적 지향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고려당은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그 동안 영업본부장을 맡았던 이명남 부사장을 기획부에 임명하는 한편 이영주 이사를 신임 영업본부장으로 임명했다.

<김경옥>

파리크라상, SK텔레콤과 제휴 기존 가입자 천만명에게 할인카드 발급



파리크라상(대표 김영덕)이 지난 1월 10일, SK 텔레콤과 조인식을 갖고 공동 마케팅을 전개한다고 발표했다.

SK텔레콤은 011 가입자수가 1천만명을 넘어섬에 따라 기존 고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파리크라상과 신세계 백화점, 아시아나 항공 등 30여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고객 우대프로그

양산업체 / 기타

삼립, '마일로' 시리즈 출시
순수 국산 캐릭터, 9~13세 주타겟



삼립식품(대표 김이중)이 지난해 말부터 방영중인 애니메이션 '마일로의 대모험' 캐릭터를 접목한 '마일로' 시리즈를 새로 출시했다.

이 제품의 주요 컨셉은 '재미있는 어린이 빵'으로 9~13세 어린이층이 주요 타겟이다. 삼립식품은 '마일로' 시리즈의 홍보를 위해 4월초까지 3개월간 DDR과 톨러블레이드, 문화상품권 등 경품을 증정하는 한편 어린이 잡지와 신문을 중심으로 광고를 게재할 방침이다.

이번에 출시된 마일로 시리즈는 딸기 샌드, 초코칩케이크 등 총 16종류로 제품을 구입할 경우 100종류에 이르는 다양한 캐릭터 스티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김경옥>

'POFAS 2000' 6월 8일 개최
베이커리 및 식품·기계 전시

부산국제식품산업박람회가 한국산업마케팅연구원 주최로 오는 6월 8일부터 12일까지 수영구 요트 경기장 옆에 소재한 부산무역전시관에서 개최된다.

국내 식품 산업 발전의 저변 확대를 위해 지방에서 개최돼 이번으로 7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베이커리 관련 기계 및 재료를 비롯해 미국, 일본, 호

주, 독일과 국내 업체들이 참가해 다양한 식자재와 식품 기계 등을 선보이게 된다.

부산국제식품산업박람회는 지방에서 개최되는 행사 중 가장 큰 규모로 작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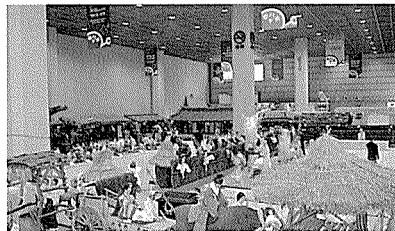
의 경우 90여 국내 및 외국 업체가 참가했고 3만 8,000여명이 관람했다.

<박종선>

■ 업체 참가 문의: 한국산업마케팅연구원

(02)733-7867

'과자의 나라, 신비한 세계' 가 아니었다
이벤트21 전시회, 당초 취지와 달리 입장수익에 치중



이벤트 전문 업체인 (주)이벤트21(대표 신동호)이 지난 1월 4일부터 코엑스에서 열고 있는 '과자의 나라 신비한 세계'가 당초 취지 및 홍보와 달리 내용이 부실해 입장 수익에만 치중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높게 일고 있다.

2월 10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당초 보도 및 홍보자료를 통해 과자, 빵, 사탕, 초콜릿 등으로 조형물을 제작, 전시함으로써 새로운 전시 이벤트를 선보인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 전시장에 선보인 조형물들은 빵, 과자 등의 소재가 아닌 것이 대부분이었고 그나마 빵, 과자로 만든 것처럼 보이는 조형물들은 겉면만 이들 소재로 치장했을 뿐이었다.

'과자민속촌'의 경우 전시 조형물은 모두 강원도 민속박물관에서 제작한 것들이었고 과자로 만든 것은 짚신, 농기구, 연장 몇 개에 불과했다. '동화의 나라'에는 4개의 대형 조형물이 설치

됐는데 모두 겉면만 빵, 과자로 덧칠한 수준이었다. 또한 초대작가전 코너에 진열된 작품들은 대부분 지난 99년 서울국제빵과자전 입상작을 그대로 전시했다.

운영면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각 언론매체에 이 행사가 소개돼 많은 관람객이 몰렸는데, 주최측은 각 전시관으로 이어지는 길목을 차단해 동선을 따라 다음 전시관으로 한번 이동하면 다시 이전 전시관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 관람객들로부터 원성을 샀다.

안산 이드프랑과자점 박경선 대표는 "주최측으로부터 행사 취지를 듣고 어린이들을 위한 뜻깊은 행사라 판단돼 시간을 쪼개 전시물 제작에 참여했지만, 이렇게 내용이 부실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이벤트21의 관계자는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베이커리 및 제과업체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워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계획대로 준비되지 못했다면 당초 책정한 입장료를 낮출 법도 한데 주최측은 성인 8,000원, 어린이 5,000원으로, 전시회로서는 매우 높게 책정한 입장료를 고스란히 채웠다. <손인수>

자영제과점 / 원부재료

**갈비집서 케이크 사은품 제공
마드레느과자점 음식점과 제휴마케팅**

새로운 매출 확대의 돌파구로서 특판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마드레느과자점(대표 원철희)이 대형 음식점과 제휴, 케이크 사은품을 제공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업소는 지난 1월 10일부터 경기도 송추 대형 음식점인 '가마골 가든'에 케이크를 공급하고 있는데, 음식점측은 이들 케이크를 재판매가 아닌 고객의 생일 선물로 무상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마드레느과자점은 음식점측에 쇼케이스를 무상 제공해 신선한 제품을 선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원철희 대표는 "월 150개 정도 물량이 나갈 것으로 본다"며 "이는 음식점측의 고객관리에 도움을 주고 제과점은 고정 판매처를 확보함으로써 양측 모두에게 이로운 전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인수〉

**조흥화학, 본격 품목 확산
3월 커스타드믹스 등 6가지 수입**

조흥화학(대표 홍순모)이 본격적인 품목 확산에 돌입했다.

인스턴트이스트, 휘핑크림, 프루츠카테일 등 꾸준히 수입 품목 확대를 꾀해 온 조흥화학은 작년에 냉장 생지용 'LT 이스트'를 자체 개발한 데 이어 다시 6가지의 제과 재료를 수입할 예정이다.

이 업체는 오는 3월 피자용 모짜렐라 치즈를 캐나다로부터 들여오고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10kg짜리 커스타드믹스(크림 믹스)를 미국에서 수입한다. 이밖에 국산품의 가격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중국산 밀감 통조림 20컨테이너를 수입하며, 경쟁 업체를 의식해 품목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3가지 재료도 수입할 예정이다.

한편 조흥화학은 취급 품목이 늘어남에 따라 오는 2월부터 본사와 지방 세미나를 대폭 늘리는 등 판매 확산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박종선〉

**선인, 7일 빵 세미나 개최
힐튼호텔 마일링거씨 7제품 소개**

재료 업체인 (주)선인(대표 이효구)가 2월 7일 프리믹스를 이용한 빵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힐튼호텔에서 오후 5시부터 개최될 예정인데 힐튼호텔 제과부인 외국 기술인인 마일링거씨가 (주)선인이 취급하는 프리믹스를 이용한 건강빵 7가지를 선보인다.

시제품을 미리 제조하고 배합 및 제조 공정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 참석을 원하는 사람은 (주)선인으로 참가 신청을 하면 된다.

■ 문의:(02)798-6936 〈박종선〉

**하모니, 전자상거래 강화
홈페이지 구축 및 신규 사업 모색**

하모니트레이딩(대표 최병순)이 전자상거래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지난해 크리스마스 시즌에 삼성 쇼핑몰에 초컬릿을 납품한 바 있는데 삼성 쇼핑몰에 재입점하는 한편 라이코스와의 접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하모니의 한 관계자는 "현재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작업을 진행중이며 한국통신과도 연계해 초컬릿

사업을 확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한상〉

**매일유업, 완전 민영화
농수산물유통공사 지분 매입**

매일유업이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갖고 있던 매일유업 지분을 매입해 민영화할 예정이다.

이 업체는 지분 중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보유한 42만주를 주당 5만 1782원씩, 모두 217억원에 인수함으로써 창사 30여년 만에 완전한 민간기업으로 탄생한다.

이번에 인수되는 주식은 희망자들에 한해 임직원과 대리점주, 낙농가에 유상 분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한상〉

**인터넷 쇼핑몰 '베이킹 테크'
본격 사업 돌입...300가지 품목 취급**

빵 관련 전문 인터넷 쇼핑몰인 베이킹 테크(www.baking.co.kr 대표 최남규)가 한달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지난 1월 10일부터 본격 사업에 돌입했다.

베이킹 테크는 80여 가지에 이르는 제품 배합표, 제과제빵 배움터, 알뜰장터 등 제과제빵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쇼핑몰을 통해 재료, 도구 등 300여 가지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최남규 대표는 "주문자의 대부분이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현재 200명 정도의 회원을 확보한 상태"라며 "적정 회원수가 확보되면 회원을 기술인과 일반인으로 분류, 맞춤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인수〉

기타

빵 만들기 체험 1일 교실 개강 크라운인스티튜트 1월부터 월 1회

크라운인스티튜트가 지난 1월부터 '빵 만들기 1일 체험'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월 1회 마지막주 토요일에 개설되는 이 교실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직접 빵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실습 제품은 매월 교체되며 신청방법 및 그달의 실습 제품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www.crownbakery.co.kr)

■ 문의 : (02)516-1717 <손인수>

불과회, 가수불사회와 결연 공동으로 위문·포교 활동 전개

대한불과회(회장 정판수)가 지난달 26일 서울 마포 불교방송국에서 불교신자 가수 모임인 대한가수불자회(회장 남강수)와 자매 결연을 맺었다.

이 두 모임은 공동으로 교도소 등을 방문해 제소자들을 위로하는 등 봉사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발렌타인 선물 세트 출시 르네상스 호텔, 다양한 제품 구비



르네상스 서울 호텔 벨리카테슨에서 오는 2월 12일(토)부터 14일(월)까지 발렌타인데이 선물 세트를 판매한다.

이번에 출시될 제품은 마카다미아 초컬릿의 하트 초컬릿, 샴페인 향의 하트 초컬릿, 화이트 잔두야 무스 초컬릿, 하트 초컬릿 박스 등이며 가격은 8,000원에서 26,000원 사이이다. <정한상>

“후원자를 기다립니다”

경북 울진군 신선양로원

경북 울진군에 소재한 신선양로원이 노인들에게 빵을 만들어 주기 위해 일부 설비를 들여왔으나 제과용 도구, 틀 등

이 부족해 후원자를 찾고 있다.

■ 연락처 0565-782-7808

군산 명성제과제빵학원 지역 기술인 대상 무료 이론특강

전북 군산 명성제과제빵학원(원장 최병수)이 오는 2월 21일부터 지역 제과점 업주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기능사 자격증 시험 대비 무료 이론 특강을 실시한다. ■ 문의 0654-467-3890

인사이동

파리크라상 (1월 1일부)

- 생산관리팀 정명종 차장 → 부장
- 부산생산팀 서두화 차장 → 부장
- 특수영업팀 이정기 차장 → 부장
- 점포개발팀 박인철 차장 → 부장

뉴욕제과(1월 20일부)

- 육현철 과장 → 제빵사업팀장(차장)
- 허완영 과장 → 제과사업팀장(차장)
- 김만식 과장 → 판매관리팀장(차장)
- 김천개 과장 → 빠르띠에 사업팀장(차장)
- 총무팀 최재오 과장 → 총무팀장(차장)
- 경리팀 박성열 과장 → 경리팀장(차장)
- 공무팀 권오석 과장 → 공무팀장(차장)
- 자재팀 이호남 과장 → 자재팀장(차장)

협회소식

목포지부, 새 지부장 남종수씨 경기총회서 올해 사업 계획 수립

대한제과협회 목포시지부는 지난해 12월 6일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총회를 개최하고 99년 사업 수지를 결산하고 올해 사업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는 한편 부영제과의 남종수씨를 새 지부장으로 선출했다.

주소 : 전남 목포시 부흥동 부영아파트 2차 상가 103호 ☎(0631)282-2977

경산지부, 새 지부장 신동명씨 경기총회서 10명 임원 개선도



경산지지부는 정기 총회에서 새 지부장에 밀발베이커리의 신동명씨를 선출했다.

▲지부장:신동명(밀발베이커리) ▲부지부장:심수보(심스베이커리) ▲이사:박태환(뉴욕베이커리), 한준식(상젤리), 정동환(보리수), 홍신곤(프로방스), 정인국(공주당) ▲감사:한춘우(금탑), 정성원(정성원과자점) ▲사무장:신정환(불란서베이커리)